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공개

‘프레임’·‘연결’ 시각적 표현

26개 원으로 형상화된 ‘J’ 그래픽 통해 프레임·움직임 보여주며 다양한 색상과 결합
여러 형태로 배열·변형되는 원들의 형상 통해 영화제의 성장 과정 대변·포부 담아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4일 전주국제영화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전주(JEONJU)의 이니셜 ‘J’를 모티브로 그래픽 캠페인을 전개해오며 독창적인 페스티벌 아이덴티티를 구축해왔다. 올해는 지금까지 기초를 이어가면서 ‘프레임’과 ‘연결’이라는 영화의 핵심 요소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포스터를 공개했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는 26개의 원으로 형상화된 ‘J’ 그래픽을 통해 프레임과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색상과 결합해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체성인 다양성과 포용성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여러 형태로 배열·변형되는 원들의 다채로운 변주와 형상을 통해 2025년 26살이 된 영화제가 성장하고 변화해온 모습을 대변하는 동시에, 전주국제영화제만의 포부와 에너지가



지 보여준다.

한편, 페스티벌 아이덴티티의 핵심 요소(‘프레임’과 ‘연결’)와 영화가 프레임의 연결로 움직이는 매체라는 특성을 살리고자 올해 공식 포스터는 무빙 포스터를 메인 포스터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포스터 디자인에는 서울과 런던을 오가며 활동 중인 시각 예술가이자 그래픽 디자이너 손아음이 참여했다. 손아음 디자이너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그래픽 디자인을 활용해 창작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열흘간 전주 영화의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사진=전주국제영화제 제공)

도·익산시, 문체부 ‘2025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공모 선정

2028년까지 총사업비 20억원 투입 기반 조성·프로그램 개발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익산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관광 환경을 구축하며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반려동물과 동반 여행이 가능한 관광 기반과 프로그램을 구축해 신규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생활 인구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20억원(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이 투입되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진행된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전북자치도와 익산시는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뒤, 합라 한옥체험단지에서 진행된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특히 ‘다다익명 익산(누릴수록 더 행복한 반려동물 치유 관광도시)’ 사업명으로 내세워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도전 끝에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와 체계적인 추진 계획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앞으로 도와 익산시는 △반려동물 특화 콘텐츠 개발 및 운영(주얼리팹파크 활성화, 다다익명 웰니스, 팻 동반 여행길 조성, 동반여행 지원) △수용태세 확립(팻 모빌리티, 애니라운지 조성, 가이드북 제작, 반려친화시민 만들기

등) △혁신발전 전략(반려동물 익산 활성화 방안 연구, 다다익명 추진단 운영, 애니 칼리지 운영, 홍보마케팅과 협력 거버넌스 조성)등 의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관광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공연평가 모니터링단 모집

10일부터 21일까지... 이메일로만 신청접수 가능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2025년을 함께할 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은 1년간 3~5회의 공연을 관람하고 간단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국악원의 향후 공연 및 운영에 도움을 주는 활동이며, 모집 대상은 만 15세 이상의 전통예술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

이며, 신청접수는 이메일(ogong1229@korea.kr)로만 할 수 있고, 기타 사항은 국립민속국악원 장악과(063-620-2329)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www.namwon.gugak.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선발된 모니터링단은 공연 우선예약 및 의견서 제출 시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달아 달아 둥근 달아’

완주 봉동읍 둔산공원에서 대보름 행사
쥐불놀이·팽이·연 만들기 등 다채

완주문화재단,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 오는 8일 완주군 봉동읍 둔산공원에서 정월대보름을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완주문화재단과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 주최, 주관하는 것으로 정월대보름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민속놀이를 재해석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LED 장비를 활용한 쥐불놀이, 팽이 만들기, 연 만들기, 전통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공연·체험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다.

정철우 완주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모여 정월대보름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일·생활균형 지원사업 본격화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자치도로부터 2억4700여만원 지원받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기업 일·생활균형 프로그램 지원 등 추진

전북여성가족재단(전정희 원장)은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올해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약 2억4,700만원을 지원받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기업 일·생활균형 프로그램 지원 △전북형 워라벨 기업만들기(가족친화인증기업 컨설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지원금’ 사업은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증가 추세를 반영, 제도 사용 장려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역사회의 일과 가정의 양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로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된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도내 출연기관 중 가족친화 미인증 기관(11개 기관)을 포

함한 총 56개소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전북형 워라벨 기업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찾아가는 일·생활균형 정책활동 컨설팅 △일·생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일·생활균형 모범사례 발굴을 위한 워라벨 경진대회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협약 △워킹맘·대니 워라벨 가족학교 △일·생활균형 홍보를 위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금요일에 만나요’ 주간 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일터 혁신과 국민의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을 적극 지원한다.

전정희 원장은 “일·생활 균형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3년 기준 일·생활균형 지수에서 전북이 16위에서 8위로 상승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삶을 만들고,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북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jbwf.or.kr) 또는 취업지원부(253-3850)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